



肝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

현대인	◆	으로 나누어지나 임상증상만으로는 양자를 확실히 구별할수 없다.
은 급변	◆	만성 간염의 증상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간성흔수를 동반한 치명적인 간부전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주요증상은 원인모를 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 정력감퇴와 월경불순, 잇몸출혈이나 경한 혀구역질등이며 가끔 일시적 혹은 지속적 활달이 눈이나 피부에 나타난다.
하는 국	◆	또한 만성간염환자가 간에 해로운 약물섭취나 과로 등으로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급성간염과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낸다. 즉 미열, 두통, 식욕부진과 팔다리가 쑤시는 몸살, 지속적인 구토등의 증세들을 보이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성 간염의 주요증상은 수주 내지 수개월에 걸
내외의상	◆	
활 속에	◆	
뒤지지 않	◆	
고 사회	◆	
생활을 영	◆	
따라서	◆	
휴식의	◆	
관 등으	◆	
성인이	◆	
성 보유	◆	
간성간염 및	◆	
사회 적인	◆	
홍수로	◆	
스스로간	◆	

간기능검사등 定期的 건강진단으로 早期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



李 孝 錫
서 을 의 대
내 과 교 수

이 경과하면 식욕부진, 구역질과 함께 배전체가 부은 듯한 불쾌감 등의 소화기 증상이 현저해진다.

가끔 구토나 우측상복부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소변색이 진해지는데, 대부분의 애연가는 담배맛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다.

이런 증상에 뒤이어 황달이 나타나는데, 황달이란 간이나 담도질환으로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세를 말

서 임상증상의 호전을 겪은후
무리를 하거나 부절제한 생활
로 재발이 올 수도 있으니주
의해야 한다.

그러나 급성간염환자의 대부
분은 이런 전형적인 황달기를
거치지 않고 감기·몸살 증세
에 그치고 날아, 간기능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간염에 걸렸다
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가벼운 증상만
을 겪고 지나가는 급성간염환
자 중 일부에서는 간염바이러

어서 서서히 진행한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에서는 전혀 증상이 없이 진행되어서,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할 때 우연히 이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심한 활달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복수가 동반되고 혼수에 들어가 훈설수술하며, 심한 출혈성경향으로 코피나위 출혈을 보이는 등 간부전증에 빠

- 초기엔 감기·몸살 증상과 비슷, 미열·두통·피로감 등 나타나
- 갑자기 「담배 맛이 떨어졌다」 느껴올 때 肝炎 발생의 심토록

간염이란 어떤 원인에 의하든 간에, 간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상태이며, 이때 간은 광범위한 간세포의 괴사와 다양한 염증세포의 침윤을 보인다. 간염은 임상적으로 크게 급성 및 만성 간염으로 나눌 수 있고, 임상 증상도 두 경우에 차이가 있다.

급성간염은 알콜홀, 약물 등
간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발생
하나 대부분은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급성간염의 증
상은 황달이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증상과, 황달기, 그리고 황
달이 없어진 뒤의 회복기 증
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초기
의 증상은 흔히 겪는 감기몸
살의 증상과 비슷해서, 미열두
통과 함께 피로감과 팔다리가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며, 수일

한다. 이때에는 소변 빛이 더욱 진해져서 붉은 고동색을 띠며, 대변빛이 얹어져 비지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황달이 깊어지면 피부의 가려움증도 동반된다. 이때가 되면 열은 떨어지나 식욕부진은 더욱 심해져서, 구역질과 구토 때문에 전혀 식사를 못하기도 한다. 심한 황달이 한두 달 이상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깊어지고, 식욕부진, 구토, 미열 등이 계속되는 경우는 심한 간세포의 파괴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대부분의 경우는 적당한 휴식과 영양보충으로 소변색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식욕이 돌아오고 황달이 빠지기 시작하며 회복기로 들어서게 된다. 완전히 증상이 소실되기까지는 수주일이 더 필요하고 간의 조직소견의 완전회복은 보통 수개월 이상 걸린다. 따라

스가 피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만성간염 상태로 넘어가거나, 간에 염증소견은 없는 만성간염 바이러스보유자가되어 가족과 가까운 친지에게 간염을 전파시켜 건강에 위협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성 간염이란 급성 간염과 같이 간세포파괴에 의한 증상

이나 간기능검사의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의 염증상태를 말한다.
만성간염의 원인은 주로 간염바이러스들에 의해서 발생되나 항결핵제인 아이나, 고혈압치료제인 알도메트등의 약제에 의해서도 발생될수 있다.

질 수도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이밖에도 관절이 붓고 통증이 오는 관절염, 피부인 오줌을 누게 되는 신장염, 그리고 피부 발진 등의 다른 장기의 병변들이 둘째되기도 한다.

만성지속성간염은 간경변으로
의 진행이 거의 없이 비교적
좋은 경과를 나타내는 반면,
만성활동성 간염은 많은 수에
서 간경변증으로의 이행을 보
이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계
속 시달리게 된다. 이들의 감
별을 위해서는 간조직검사가 꼭
필요하다.

일을 해야 할 나이에 만성간염으로 진단을 받아, 사회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장기적인 투병을 지속하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이요, 개인적 재앙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라도 이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것이다. 최근 간염백신의 개발과 계속적인 홍보로 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고 무적이다. 만성간염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피로감, 식욕부진등이 다른 원인으로도 올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는 專門醫의 진찰이 꼭 필요하다. 겹친 피로를 만성간염으로 알고 위축되는 기우와, 만성간염을 파로 탓으로 돌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여 불행에 빠지는 만용이 있어서는 악 뿐 것이다.

우리손으로 개발!

우리技術, 우리原料로 만든 B型肝炎백신

헤파박스®-B



주식 회사

녹십자

• 분사 : 584-0131(代) • 판매 : 서울741-0131, 부산83-8977, 대구352-4911, 대전629-0131, 광주56-5781, 전주3-7310, 마산2-4991, 원주42-2759, 청주52-8661, 인천73-0132